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37:30-3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시편 1:1-2,4)

하나님, 정의를 말하고 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언론들의 편향된 보도 행태로 교회와 사회가 이란 전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위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먼저 기독교 언론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인식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소식과 사람들의 말소리에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몸 된 이란의 성도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통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예수교회로 회복시켜 주소서.

5. 북한을 u □ o e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을 지우고 수령을 세웠다”... 북한, 기독교 ‘구원 서사’ 흠쳐 체제 유지
브루킹스연구소 토론회... 김씨 일가 ‘정치 종교화’ 전략 지적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 27일 ‘북한의 권력·종교·이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인과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북한 김씨 일가가 기독교의 영적 구조와 서사를 교묘히 차용해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는 심층 분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너선 청(Jonathan Cheng) 중국 지국장은 이 역설의 역사적 뿌리를 짚었다. 19세기 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도시였으며, 1907년 대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김일성은 주일학

교 교사와 청년 모임 지도자로 활동하며 바로 그 신앙의 도시에서 종교가 인간을 얼마나 강력하게 결속시키는지 몸소 체득했다.

결국 김일성은 집권 후 그 지식을 권력 설계에 이식했다. 청 지국장은 “실제 종교는 ‘아편’이라며 탄압하면서도, 그 작동 원리는 자신의 이상화에 그대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신도들의 순수한 열정을 가로채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가짜 종교 체제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CIA 한반도 담당 분석관 출신인 정 박(Jung H. Pak)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이 구조가 현재까지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난의 행군’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수십만 명이 아사한 재난조차 ‘오직 수령만이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구원 서사로 탈바꿈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차관보는 이 메커니즘의 잔혹한 심리 구조도 설명했다. 정권은 굶주림의 원인을 지도자의 무능이 아닌 주민 개개인의 충성심 부족으로 돌려 자책하게 만든다. 그 틈을 파고들어 오직 김정만만이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이 종교를 극단적으로 탄압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부차관보는 “종교는 국가 승인 없이도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수령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는 체제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가짜 신 노릇을 하는 김정에게는 체제를 위협하는 치명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통치 구조는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 직결된다. 박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는 협상 불가라고 선언했지만 인권은 그 금지 목록에 올리지 않았으며, 북한과의 재판역 시 인권을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김씨 일가의 통치가 단순한 정치 독재를 넘어, 인간의 근원적 신앙심을 착취하는 정교한 기만 체계 위에 구축됐음을 보여준다. 이념 문제로만 치부돼 온 이 구조적 억압의 실체를 직시하는 국제사회의 각성이 요구된다(출처: 기독교일보, VOA 종합).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요한계시록 5:12)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1-12)

하나님, 주님과 같아지려는 사탄의 교만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꺾으셨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종속시켜 종 노릇하게 하는 김씨 일가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통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은 독재체제의 위협 요소로 낙인 찍힌 북한 교회가 구원자를 주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북한 땅에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6. ἰ 'Υἱ Ἐθ ὁ ἰ ο ε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살롬나비 “AI 시대 미래 지도자인 어린이, 성경적 세계관과 사랑으로 양육하자”

어린이날 104주년...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AI 시대의 쓰나미 속에서 미래의 지도자인 어린이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롬나비는 1일 논평에서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선포한 지 104년을 맞이했다”며 “오늘날 어린이들은 자연보다 문명의 이기 속에서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의 꿈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에게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느냐는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관이야말로 어린이가 지혜를 얻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디딤돌이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물하여 세 살 버릇이 백 세까지 가도록 돕는 신앙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질세계에 익숙해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며 “도시 속에 머물기보다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창조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꽃과 나비를 보며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살롬나비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AI 만능 시대는 어린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박탈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AI에게 의존하면 피동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 인간이 만든 장난감보다 자연현상에 대해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창의력 사고 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정의 역할에 대해 “어린이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안정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부모는 하나님이 선물해주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어린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체 입법을 제정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자식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와 교회는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시편 111: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신명기 4:10)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부모세대가 주의 선물인 자녀들을 자신의 원함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여 다음세대에게 복음의 복이 흘러가게 하사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하오니, 이들이 가장 소중한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소서.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만물을 누리며 그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참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다음세대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